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2장 기독교인과 박해

『산상설교』 상권 제12장, 인쇄 161~174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0 (5:11~12는 이 복을 제자들에게 적용한 부분)

> ❓ **신앙 때문에 손해 보고 미움받는 것도 '복'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진짜 그 복에 해당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팔복의 마지막 복이 앞의 복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부터 설명한다. 이 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직접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그 성품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 주는 간접 묘사다. 그다음 그는 “의를 위하여”라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까다로움, 광신, 정치적 대의명분, 선함과 고상함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 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씩 걸러 낸다. 이어서 의란 곧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세상과 형식적 종교인에게서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과 교회사로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복을 시금석(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그리스도관, 기독교관, 중생의 필요를 점검하고, 박해를 영광과 위로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 절별 정리

📜 1. 마지막 복의 자리 — 간접 묘사, 화평 다음, 천국으로 닫힘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복이 다른 복들과 어떻게 다른지 짚는다. 다른 복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그린다. 이 복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마태복음 5:9) 바로 다음에 온다는 점에 주목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세상의 죄를 얼마나 정확히 보는지 드러낸다. 또 이 복의 약속 “천국이 그들의 것”은 첫째 복의 약속과 똑같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난다. 천국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그 백성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가장 큰 복은 영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이다.

1. 이 복도 그리스도인의 성품 묘사다(간접형)
2. 그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말한다
3.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박해받는다 — 세상의 죄
4. 첫째·여덟째 복의 약속이 “천국”으로 같다
5. 가장 큰 복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

마태복음 5:10

설교 본문. 의를 위한 박해와 천국 약속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11~12

같은 진리를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한 정교화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9

바로 앞의 복. 화평자이기에 박해받는다는 연결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같은 약속 “천국”으로 팔복의 처음과 끝을 묶음

“기독교인이 화평자라면 박해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 2. 부록이 아닌 시금석 — 오늘의 박해와 "의를 위하여"

로이드 존스는 이 복을 순교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기는 태도를 경계한다. 그는 이 복이 팔복 가운데 가장 '탐사성'이 큰 복, 곧 우리 속을 가장 깊이 파헤치는 복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적용된 복이기도 하다. 그는 이 가르침이 복음서와 서신서 전체를 관통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언급한다. 과거의 박해는 대체로 지역적이었지만 오늘날의 박해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베드로가 말한 “불 같은 시험”이 지금 안전하고 편안한 영국 교회에도 닥칠 수 있다. 그러니 이 절의 뜻을 정확히 아는 일이 시급하다. 가장 크게 강조할 낱말은 “의를 위하여”다. 본문은 그냥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1. 다른 사람 얘기인 부록이 아니다
2. 팔복 중 가장 깊이 찌르는 시금석이다
3. 가장 많이 오해된 복이라 신중해야 한다
4. 오늘의 박해는 세계적이다(1950년대 상황)
5. 열쇠는 “의를 위하여”라는 조건이다

> **베드로전서 4:12**
> 교회에 닥칠 “불 같은 시험”. 지금도 대비해야 함
>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 **마태복음 5:10**
> “박해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3. 이 복이 아닌 것 ① — 까다로움, 어리석음, 광신

로이드 존스는 “의를 위하여”를 분명히 하려고 이 복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걸러 낸다. 첫째, 성격이 까다롭거나 남을 거슬러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복과 상관없다. 증거(전도)에 대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가져서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다. 그는 우리가 편견과 원칙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내 기질 때문에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과 의롭기 때문에 불쾌하게 하는 것도 쉽게 혼동한다. 광신이나 지나친 열심도 같은 경우다. 예배 중에 이상한 어조로 '아멘'을 연발하며 그것을 영성의 증거로 여기는 것은 거짓된 예배관이다. 그는 실제로 아는 한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든다. 그 사람은 전도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주님의 명령을 바르게 대하지 못했고, 자기뿐 아니라 아내에게까지 고난을 안겼다. 베드로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살인자, 도둑과 같은 범주에 넣었다. 이 점을 주목하라고 그는 말한다.

1. 까다로움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 복이 아니다
2. 편견과 원칙, 기질과 의를 구별하라
3. 광신·과잉 열심은 불필요한 고난을 부른다
4. '아멘' 연발을 영성으로 보는 것은 거짓 예배관
5.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 **마태복음 10:16**
>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갖춰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라
>
>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 **베드로전서 4:15**
>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으로 받는 고난은 해당 없음
>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 4. 이 복이 아닌 것 ② — 대의명분과 정치

둘째로 걸러 낼 것은 어떤 대의명분 때문에 받는 박해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별이 미묘하다고 인정한다. 역사 속 많은 순교자는 의와 대의를 함께 위해 고난받았다. 하지만 두 가지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그는 순교를 열망하며 순교당하려고 애쓰는 정신을 위험하다고 본다. 나치 독일의 예도 든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설교하고도 아무 일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반면 수용소에 갇힌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히틀러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다만 기독교와 정치를 섞으면 박해를 받아도 놀랄 일이 아니며, 그것이 반드시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라고 말한다. 정치적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정치적 고난을 택했다면 그 길을 가되, 이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당시 중국과 유럽 대륙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가장 날카로운 문제였다. 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기독교 신앙은 반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의 영혼과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가 곧 반공이라는 인상을 주면 그들이 복음에 귀를 닫게 된다.

1. 의를 위함과 대의를 위함은 늘 같지 않다
2. 순교를 열망하는 정신은 위험하다
3. 나치 시대 투옥은 대체로 정치적 이유였다
4. 정치적 고난에는 이 복의 약속이 없다
5. 기독교 신앙은 반공산주의가 아니다

> **마태복음 5:10**
> 약속은 '의를 위한' 고난에만 붙어 있다는 근거
>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5. 이 복이 아닌 것 ③ — 선함과 고상함, 그리고 의의 정체

마지막으로 걸러 내 것은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희생적이어서 박해받는다는

높인다고 지적한다. 고상함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큰 희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높여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독교인지, 일반적인 고상함인지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인가. 그는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사람은 언제나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요한복음 15장)과 바울의 말씀(디모데후서 3장)은 제한이나 단서가 없는 절대적 진술이다. 구약의 아벨,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 이를 실증한다. 신약의 사도들, 특히 부드럽고 친절하면서도 누구보다 박해받은 바울도 그렇다. 최고의 모범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실 만큼 부드러웠지만 죽임당하신 주님이다. 교회사에서도 존 후스, 스코틀랜드 언약도, 청교도, 18세기 부흥 지도자들, 20세기의 허드슨 테일러가 같은 진리를 증명한다.

1. 세상은 선하고 고상한 사람을 칭찬한다
2. 희생 자체가 곧 기독교는 아니다
3. 의 = 그리스도를 닮는 것
4. 그분을 닮으면 박해는 예외 없이 온다
5. 성경 인물과 교회사가 끝없이 실증한다

> **요한복음 15:18~20**
>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한다. 절대적 진술
>
>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 **디모데후서 3:12**
>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모두 박해받는다
>
>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인 아벨이 형에게 박해받은 첫 사례

>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이사야 42:3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주님의 부드러움. 그래도 박해받으심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마태복음 12:20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한 신약 본문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 6. 누가, 왜 의인을 박해하는가

로이드 존스는 박해가 세상에서만 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가장 격심한 박해 가운데 일부는 교회 안과 종교인에게서 왔다. 예수님을 주로 박해한 이들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였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 박해받았다. 중세에 순수한 진리대로 조용히 살려던 이들은 로마 가톨릭에게, 청교도들은 명목상의 종교인들에게 박해받았다. 그는 회심자들이 바깥사람보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박해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한다. 바깥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변화를 반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왜 선인은 칭찬받고 의인은 박해받는가. 선인은 “가장 좋을 때의 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것은 결국 나를 칭찬하는 셈이 된다. 반면 의인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는 말없이도 그 사람됨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하며 흠을 찾는다. “그리스도인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 바로 이것이다. 다니엘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행했지만, 그의 행동이 남을 정죄했기 때문에 박해받았다.

2. 형식적 기독교가 참 신앙의 큰 원수다
3. 선인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4. 의인은 달라서 존재만으로 정죄가 된다
5.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 박해의 전형이다

다니엘 6:4~5

흠이 없어 신앙 문제로만 걸고넘어진 의인의 예

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 6:10

다니엘은 조용히 평소대로 행했을 뿐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님이 박해받은 것은 그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기독교는 순수 신앙의 가장 큰 원수일 때가 많습니다.”

📜 7. 결론 — 그리스도관·기독교관의 시금석, 중생, 그리고 영광

로이드 존스는 이 복에서 몇 가지 결론을 끌어낸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예수를 칭찬하는 세속인들은 그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을 뿐이다. 둘째, 이 복은 우리의 기독교관을 시험한다. 우리는 흔히 누구도 화나게 하지 않고 인기 있고 지내기 편한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 화가 있다고 하셨다. 셋째, 불신자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혐오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의를 싫어하는 옛 성품 대신 그분을 사랑하는 새 성품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면 세상이 칭찬하지만, 그대로 '닮으면' 세상이 혐오한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은 어둠을 드러내므로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고 말한다. 무례하거나 박해를 자초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닮으면 박해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최종 증거다.

1. 세상이 칭찬하는 예수는 잘못 본 예수다
2. 모두가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은 경고 신호다
3.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4. 모방은 칭찬받고, 닮음은 미움받는다
5. 의를 위한 박해는 천국 시민의 증거요 특권이다

> **누가복음 6:26**
>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기독교관의 시금석
>
>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 **누가복음 23:18~19**
> 군중이 예수 대신 살인자를 택함. 세상의 실제 반응
>
>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 **빌립보서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5:41

첫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함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전서 4:13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베드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2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야고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팔복

마태복음 5:3~12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로 시작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린다.

의(이 장에서)

단순한 선함이나 고상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탐사성(시금석)
우리 속을 깊이 파고들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려내는 성질 또는 기준이다.

명목상(형식적) 그리스도인
이름과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신약의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언약도(Covenanter)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언약을 맺고 박해를 견딘 장로교인들이다.

청교도
16~17세기 영국에서 성경대로 교회와 삶을 개혁하려다 국교회 쪽의 박해를 받은 개신교인들이다.

중생
성령께서 옛 성품을 새 성품으로 바꾸어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게 하는 출발점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마지막 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세상과 부딪쳐 생기는 결과를 그리며, 팔복을 '천국'으로 닫는다.
- 약속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만 있다. 까다로움, 광신, 정치적 대의, 일반적 고상함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해당하지 않는다.
- 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그분을 닮은 사람은 세상과 형식적 종교인에게서 반드시 미움받는다.

- 무례하게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되, 의를 위한 박해가 오면 그것을 천국 시민의 증거이자 특권으로 기뻐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